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 대응 방향

20010.03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준)

E-mail: jwhan7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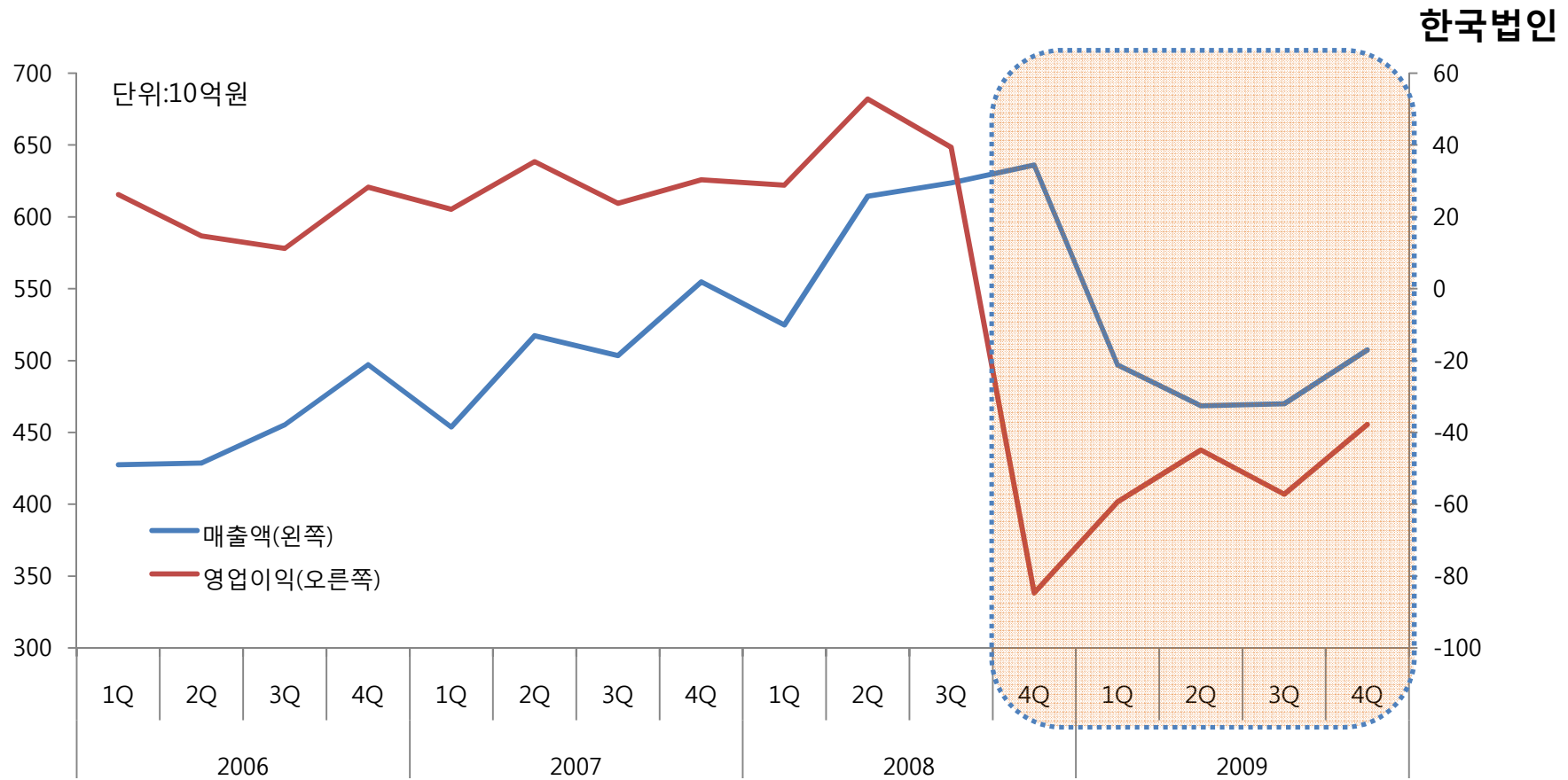
Tel: 02-778-4001

Fax: 02-778-4006

1부

- 현 재무 상황
- 유동성 위기 배경
 -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수익성 악화
 - 무리한 인수 합병
- 동종 업계 상황
- 2010년 영업 전망
 - 경제 전망
 - 자동차 산업 전망
 - 타이어 업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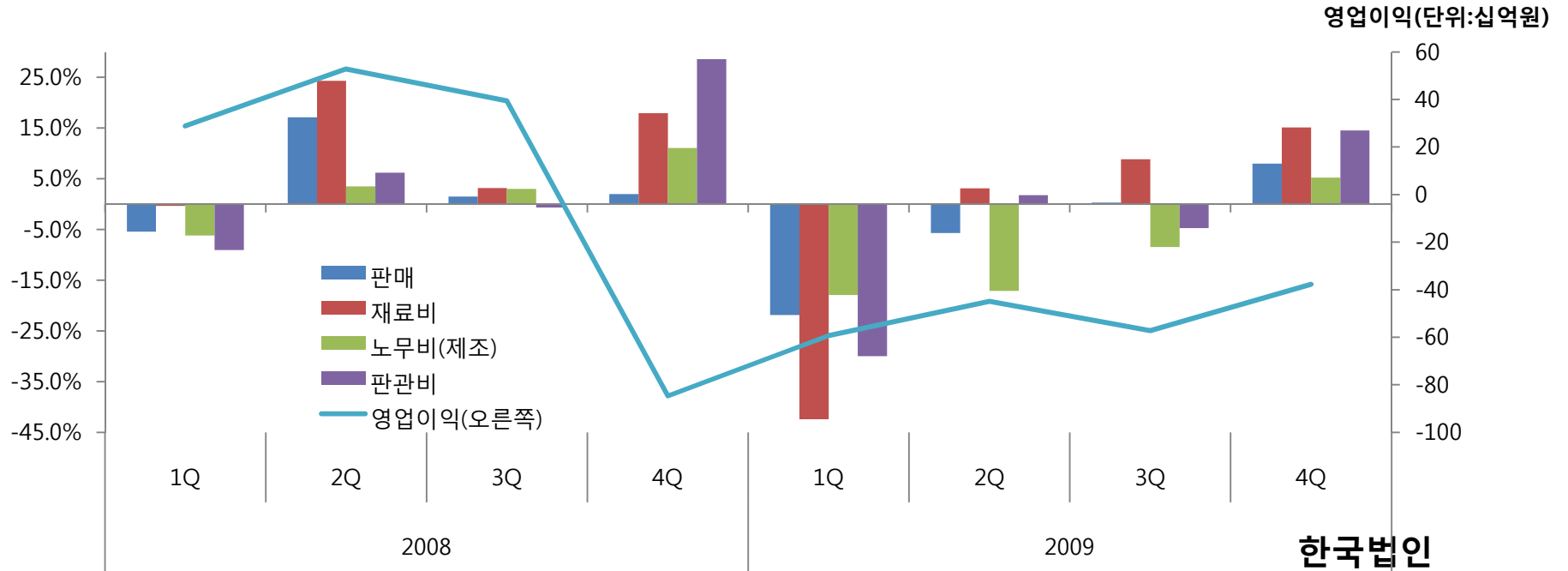
재무 상황 (영업 수익)



한국법인은 2008년 4/4분기부터 영업 이익 급락. 2008-4/4부터 2009-4/4까지 5분기 동안 2,840억 영업적자. 2009년 한 해 동안은 2,000억 영업적자.

재무 상황 (영업 수익)

매출 및 비용 증감(전기대비)



2008년 4/4분기에 영업이익 크게 하락한 것은 매출 증가 비율에 비해 재료비 증가가 너무 컸기 때문. 2007년 4/4분기부터 크게 뛰기 시작한 원자재 가격은 2008년 4/4분기까지 지속되며 세계경제 위기보다 한 템포 느리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9년 1/4분기부터 영업적자 수준이 다소 낮아진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무비를 계속 하락시켰기 때문.

재무 상황 (영업 수익)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비교

(단위:십억원)		2008-4Q	2009-3Q	2009-4Q
매출액	금호	497	470	507
	한국	691	762	758
매출원가	금호	605	449	455
	한국	514	489	516
판관비	금호	116	79	90
	한국	139	117	159
영업이익	금호	-84	-57.2	-38
	한국	37	156	83

금호타이어의 한타에 대한 항목 별 비율

(금호/한국)	2008-4Q	2009-3Q	2009-4Q
매출액	72%	62%	67%
매출원가	118%	92%	88%
판관비	83%	67%	57%

재료 비용 비교

(USD/톤)	2008-4Q	2009-3Q	2009-4Q
금호타이어	2,322	1,577	1,708
한국타이어	2,338	1,529	1,657

인건 비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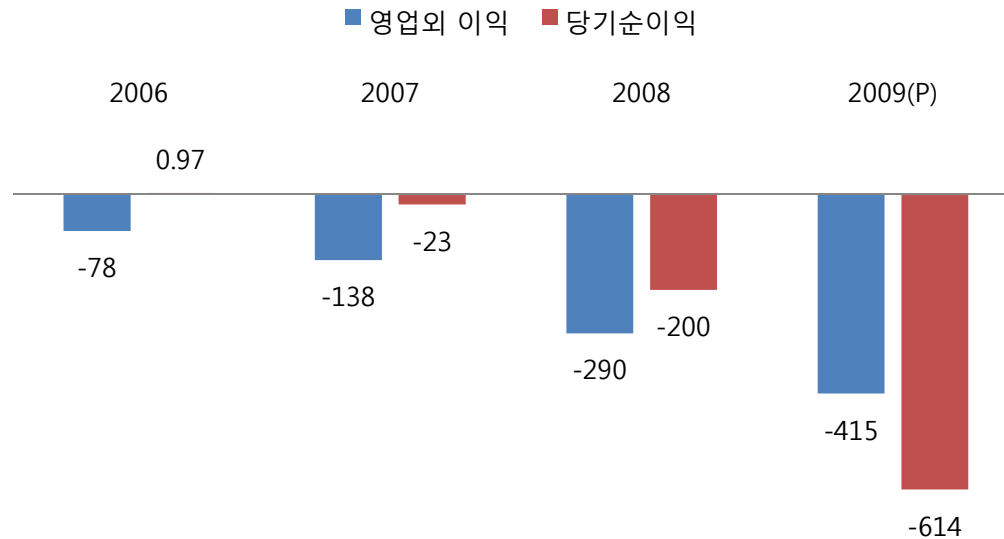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인)		2008	2009(P)
생산직	금호타이어	72	58
	한국타이어	43	52
사무직	금호타이어	49	40
	한국타이어	40	48

금호타이어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이 좀 더 높은 이유는 재료비 인건비 모두 단위당 비용이 한국타이어보다 높기 때문.

2009년 금호타이어는 인건비용을 대폭 낮추어 한국타이어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 하지만 단위 재료 비용은 오히려 한국타이어와 격차가 벌어짐

재무 상황 (영업 외)

(단위:십억원)		2006	2007	2008	2009(P)
영업외 손실	이자비용	-46	-65	-76	N/A
	지분법 손실	-34	-43	-72	-183
	외환관련손실	5	-20	-118	N/A
	총영업외손실	-78	-138	-290	-415



금호타이어가 큰 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영업 적자보다도 영업외 적자가 더 큰 영향.

-이자비용

대우건설 지분 획득을 위한 무리한 자금운영과 3년 연속 발생한 순손실로 인한 차입금 증가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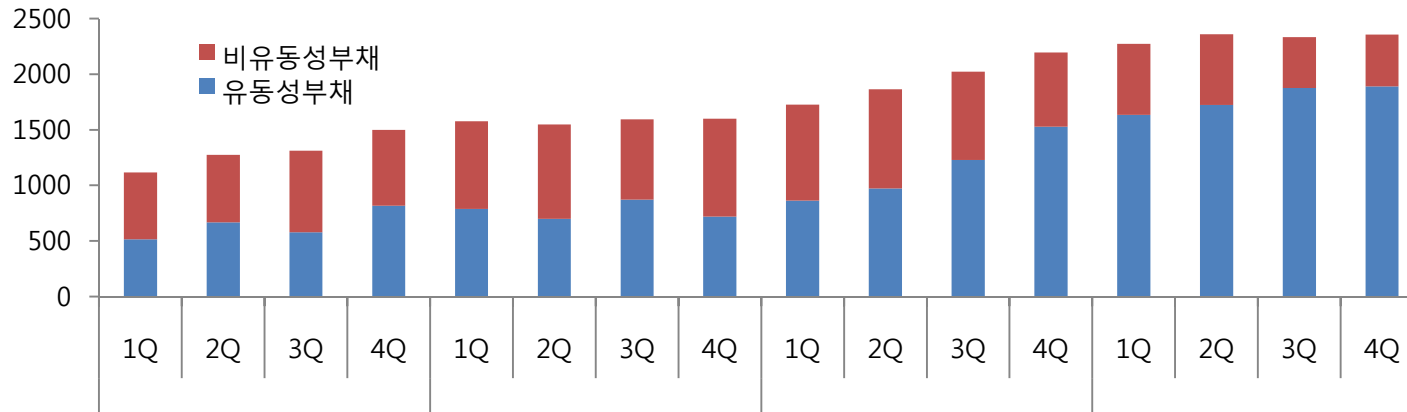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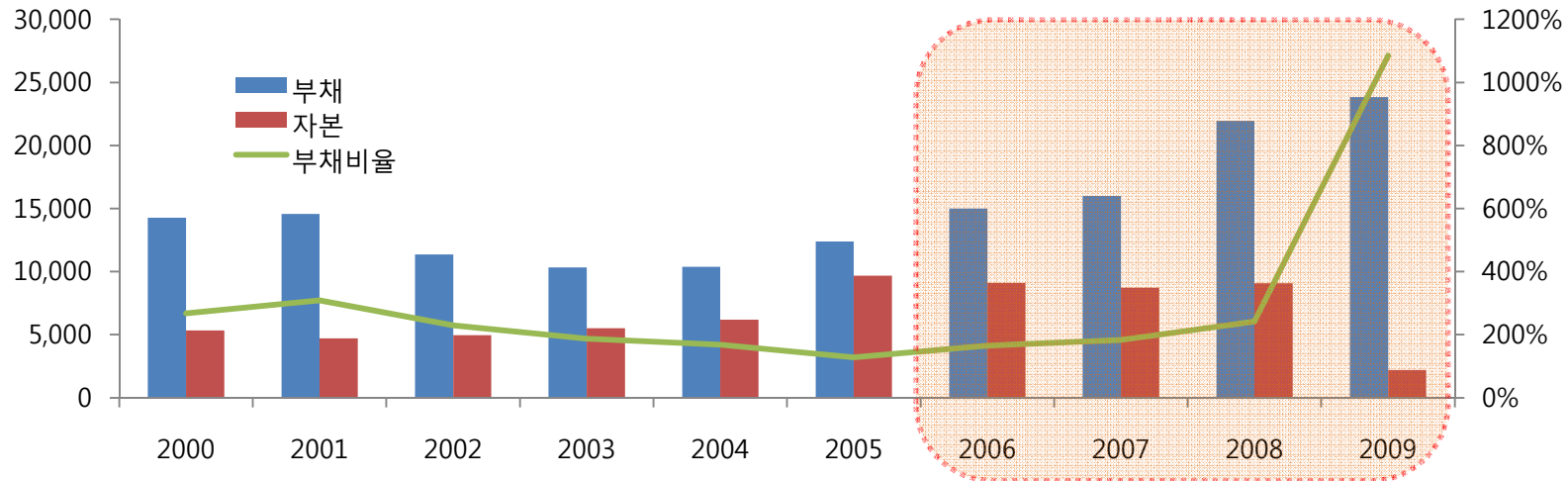
-지분법손실

중국 생산 공장에서 저가로 제품을 한국법인에 팔면서 발생하는 손실과 해외영업법인들의 판매 부진이 이유. 09년에는 해외판매법인들(미국, 유럽)이 심각하게 부실

-외환관련손실

수출 관련 선물환 거래에서 07,08,09년 모두 큰 손해를 봤고, 08,09년에는 환율 폭등/폭락을 예상하지 못하며 큰 손해.

재무 상황 (자산)



2000년대 초반부터 줄던 부채는 2005년을 기점으로 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2조3,863억 원에 이릅니다. 한편 자본금은 08년 09년 손실 증가로 대폭 줄어들어 2,197억 규모. 부채비율은 대우건설 인수 직후인 2006년부터 늘기 시작해 2009년에는 1,085%에 이릅니다.

재무 상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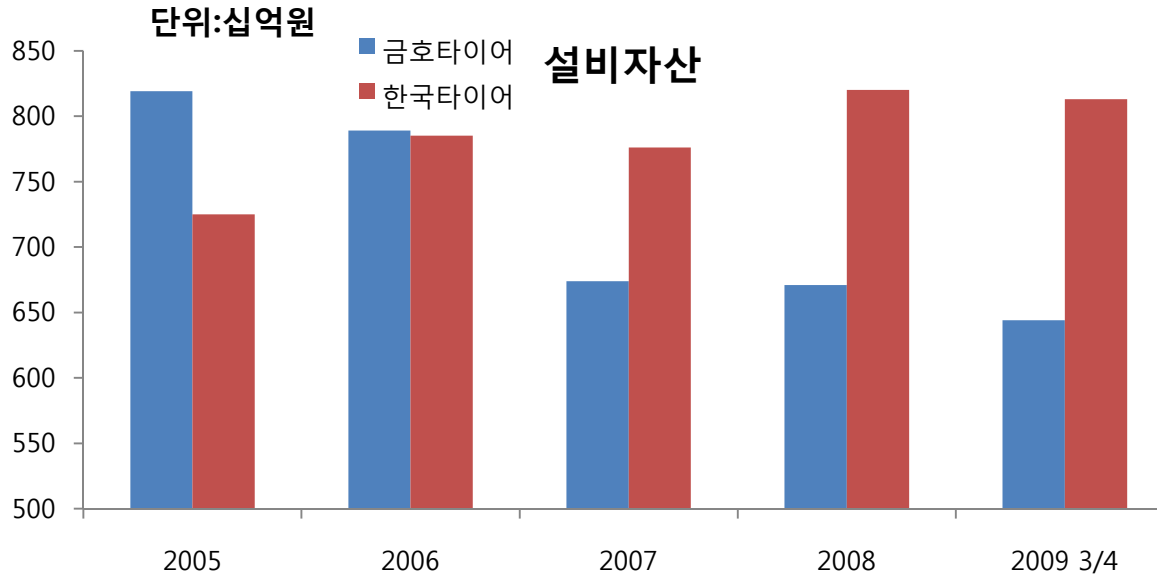
2009년 3/4분기

유 동 부 채 총액	(단위:십억원)	1,874
1. 매 입 채 무	207	11.0%
2. 단 기 차 입 금	806	43.0%
3. 유 동 성 사 채	209	11.2%
4.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78	4.2%
5. 유동성장기부채	322	17.2%
6. 미 지 급 금	183	9.8%
7. 미 지 급 비 용	46	2.5%
8. 파 생 상 품 부 채	5	0.3%
9. 기 타 유 동 부 채	13	0.7%

단기차입금 2009년 2월 현재 6천9백억
 산업은행 당좌차월한도 600억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 3천억(워크
 아웃 이후 1천억 차입)
 우리은행 등 어음 3천2백억

유동성 장기 부채
 KB투자증권, 산업은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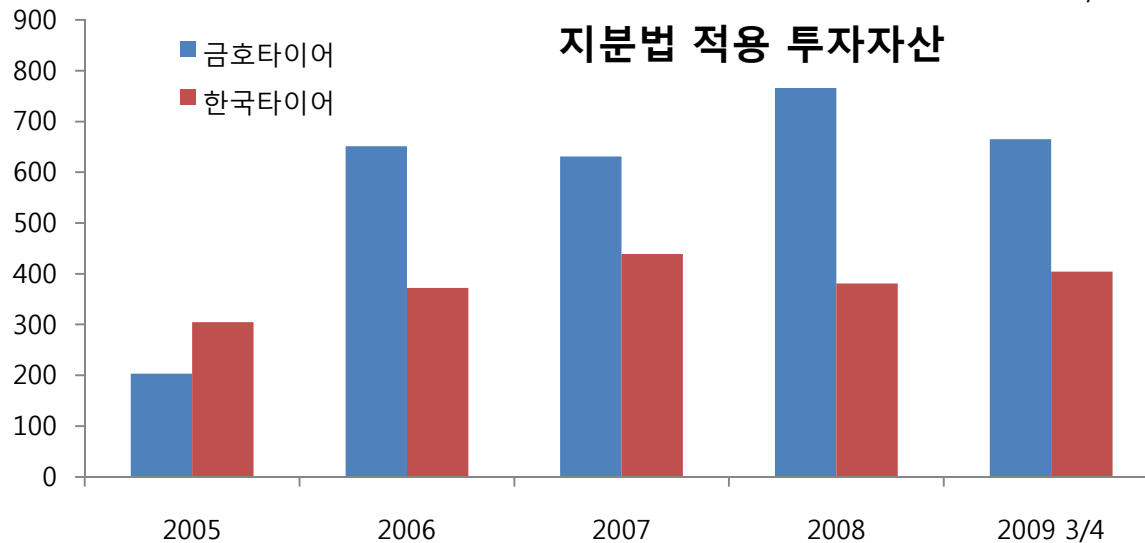
재무 상황 (자산)



금호타이어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설비 투자를 거의 하지 않음.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확대한 한국타이어와 대조적. 2007년이 되면 설비 자산 규모가 역전됨.

금호와 한국의 생산성 격차는 이러한 설비 투자 차이로 인한 면이 다분히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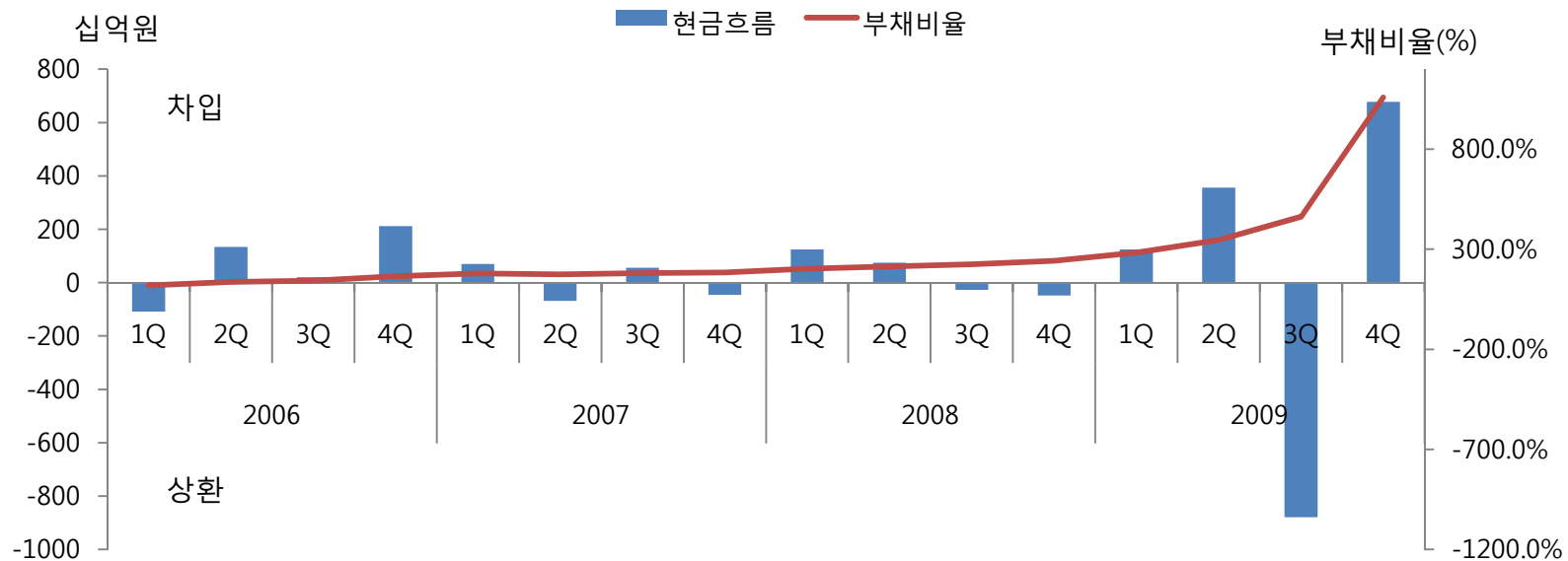
금호타이어는 2006년 대우건설 주식 취득을 기점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 자산이 급증. 이후에도 해외공장 증설로 2008년까지 계속 증가.

한국타이어의 경우 2007년을 정점으로 다소 하향 추세

소결 -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의 원인

•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재무 조건 악화

- 2005년 금호산업 고리 차입금 교체, 텐진 공장 건설 등으로 순액 4천5백억 규모 차입(1조 차입, 5천5백억 상환).
- 재무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이익잉여금 2천5백억, 사채 2천5백억으로 대우건설 인수 참가.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자비용만 약 3천억. 차입금 상환과 신규 차입금으로 매년 6천억에서 1조원 가량 현금 이동. 연 영업이익이 1천억 대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친 재무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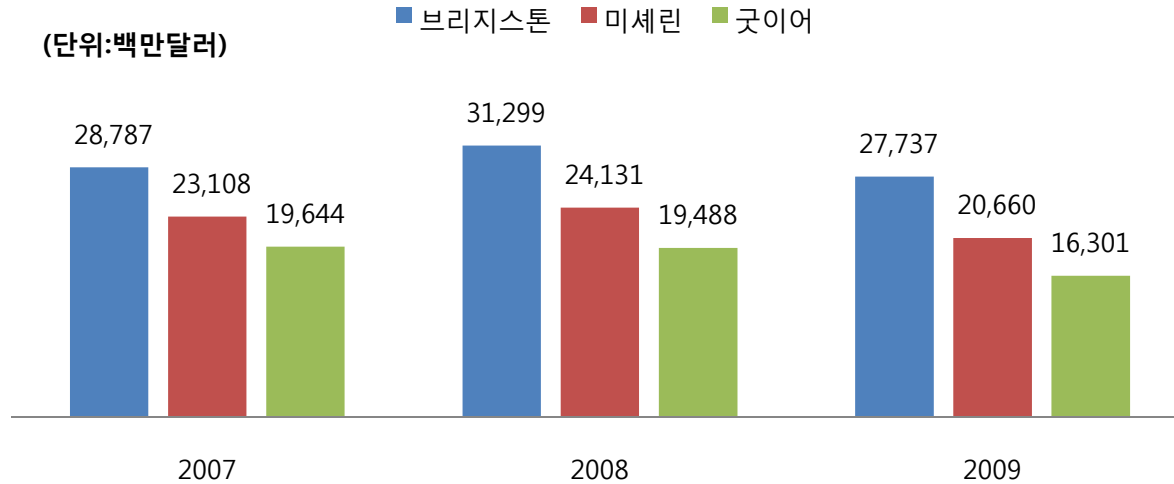
소결 -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원인

- **경제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 그리고 경영 실패**
 - 2009년 매출은 전기에 비해 3천6백억 감소(-18%). 한국타이어의 경우 1천6백억 규모(-6%). 매출 감소로 영업 적자가 불가피했음
 - 하지만 영업적자(2천억)보다 2배나 많은 영업외적자(4천2백억)가 기업 전체적으로는 더 문제였음. 천억 원대의 이자, 외환손실 등은 경영진의 실수임. 참고로 한국타이어는 영업외이익이 1천억원 대.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 M&A만 관심을 가진 금호그룹 차원의 경영 결과.
 - 이외에도 경영진의 무능한 외환운영이 2008,2009년 대규모 외환 손실을 가져왔음. 금호타이어는 2년간 약 1천3백억 규모의 외환손실 기록. 반면 한국타이어는 같은 기간 370억 정도만 손실.
- **국내 설비 투자 방기와 무리한 해외진출**
 - 금호타이어는 2006년부터 무리한 해외공장건설로 자금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켰음. 한편 반대로 국내 공장은 제대로 된 설비투자도 하지 않아 여러 생산성 문제를 야기.
 - 한국타이어와 비교해보아도, 한국타이어는 꾸준하게 국내 투자를 유지했지만, 금호타이어는 설비자산이 2005년 기준으로 22% 감소. 한국타이어는 12% 증가.

국외 타이어 업체 상황

매출액

(단위: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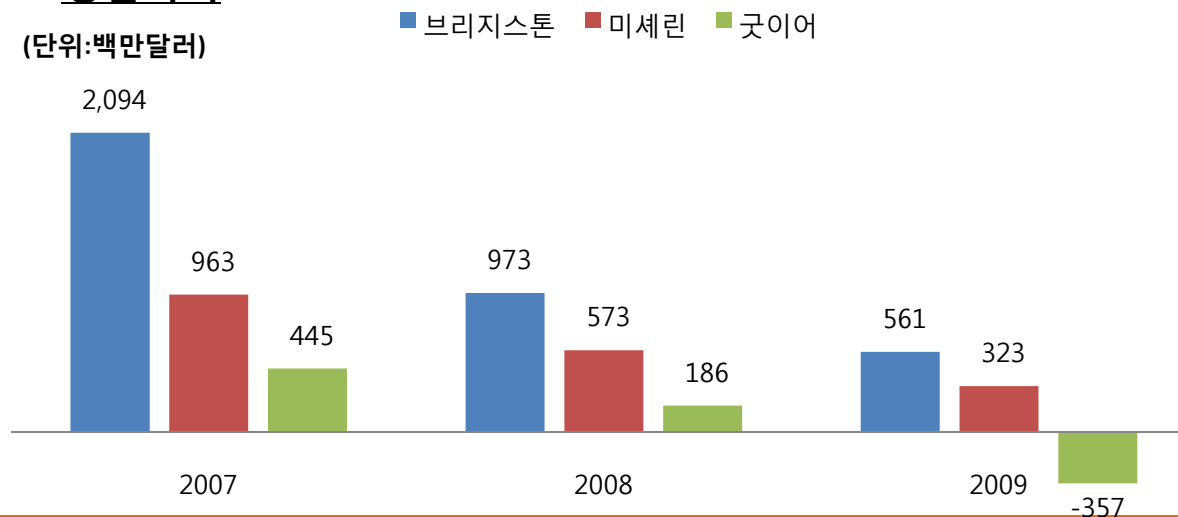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타이어 업체들이 매출 하락을 겪음.

특히 2009년의 경우
 브릿지스톤은 -11.4%
 미세린은 -14.4%,
 굿이어는 -16.4% 감소했음.

영업이익

(단위:백만달러)



영업이익 역시 크게 줄었음. 경제위기가 가장 심했던 미국 업체(굿이어)가 가장 심한 하락.

국외 타이어 업계 상황

- **미쉐린**

- 미국 알라바마 공장 폐쇄. 천 여명 노동자 해고. (2009.4)
- 프랑스 로쉬 지역 공장에서 1,500여 노동자 해고 (2009.6)
- 2011년까지 3,500여명 감축 발표(2009.06)

- **컨티넨탈**

- 프랑스 클레로이 공장 폐쇄 예고. 1,100여 노동자 고용 문제 미정(2009.3)

- **굿이어**

- 프랑스 아미앵 공장에서 820명 해고.(2009.04)
- 오스트레일리아 공장 폐쇄.(2009.1). 08~09년 초까지 미국에서 9,000명 해고.

미쉐린 노동자들의 투쟁(2008)

08년 2월 미쉐린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토울 공장 폐쇄 결정.
노동조합은 즉각 점거 파업 돌입하여 바리케이트를 쌓고 4일간 총파업 진행.
결국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 2000유로 급여 인상과 조합원이 원하는 공장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결정

컨티넨탈 노동자들의 투쟁(2009)

09년 3월 독일계 컨티넨탈 기업이 프랑스 공장 폐쇄 결정.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을 선언하고, 4만5천명 인구 도시에서 1만5천명이 공장 앞 집회 진행.
1천명으로 구성된 원정 투쟁대를 독일 본사에 보내 한달여간 투쟁.
사측은 2010년 노조 동의 없이 공장 폐쇄를 하지 않기로 협정.

2부

- **경제전망**
 - 세계
 - 국내
 - 자동차업종
- **금호그룹 구조조정 전망**
 - 그룹 분리 전망
 - 소유권 및 구조조정 전망
- **구조조정 대응 방향**

경제 전망 (세계)

- 세 가지 전망이 존재

- 시장 균형 회복에 따른 V자 회복 (Michael Mussa, IIE)

- 시장근본주의자들의 견해. 이번 경제 위기는 리만브라더스 등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늦어지며 시장 교란 요인이 커진 것이 원인.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한계기업들을 정리하면 다시 시장 균형 회복.
 - 2010년부터 회복되어, 1~2년 내 예전 규모로 4~5% 세계 경제 성장 가능
 - 지나친 정부 개입이나 시장 규제는 오히려 균형 회복에 독. 구조조정에 매진해야 함.

- 금융 규제 여부에 따라 U자 회복 (Paul Krugman)

- 케인지안의 견해. 이 번 경제 위기는 80년대 이후 무차별적인 시장 규제 해체로 발생. 금융 시장의 투기성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했으며,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자산 시장 거품이 정리되며 경제 회복.
 - 금융 규제 성공 여부에 따라 3~5년 동안 혼란기 거치며 정상화.
 - 정부 개입을 통한 금융 규제와 사회안전망 확보로 건전한 소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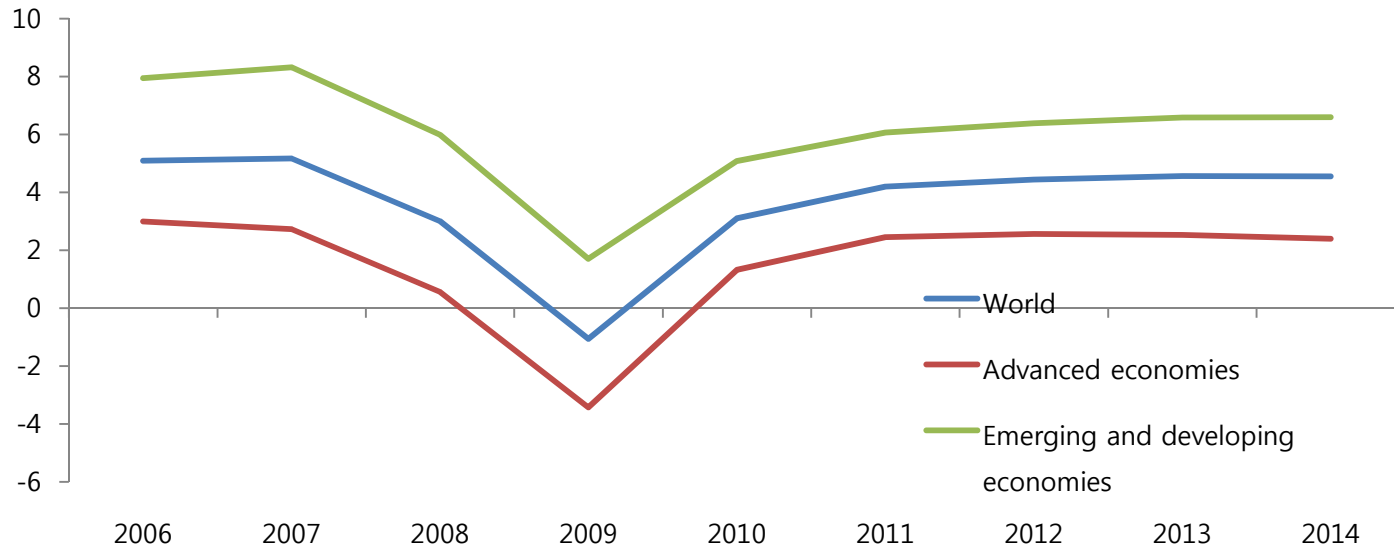
-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로 L자 저성장 지속 (Gerard Dumenil)

- 마르크스주의의 견해. 이 번 경제위기는 70년대 이후 계속된 이윤율 하락 국면에서 발생. 이윤율 하락에 대한 금융적 대응이 문제가 생긴 것이 이번 위기. 기축 통화 달러를 이용한 미국의 쌍둥이 적자 해결이 위기에 봉착하여, 세계적 달러 헤게모니 붕괴.
 -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자본 축적 방식이 등장하지 않으면 위기 지속.
 -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 필요. 노동자운동이 다시 살아나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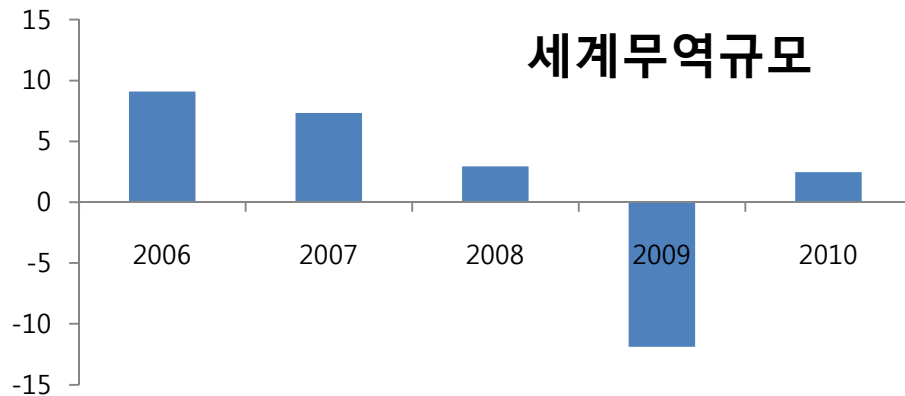
경제전망 (세계)

• 낙관적 전망 (IMF 예상치)

세계경제성장률



세계무역규모



IMF는 V자 회복을 전망. 2010년 2011년은 기저효과로 4~5%대 성장을 하고 이후 예전 규모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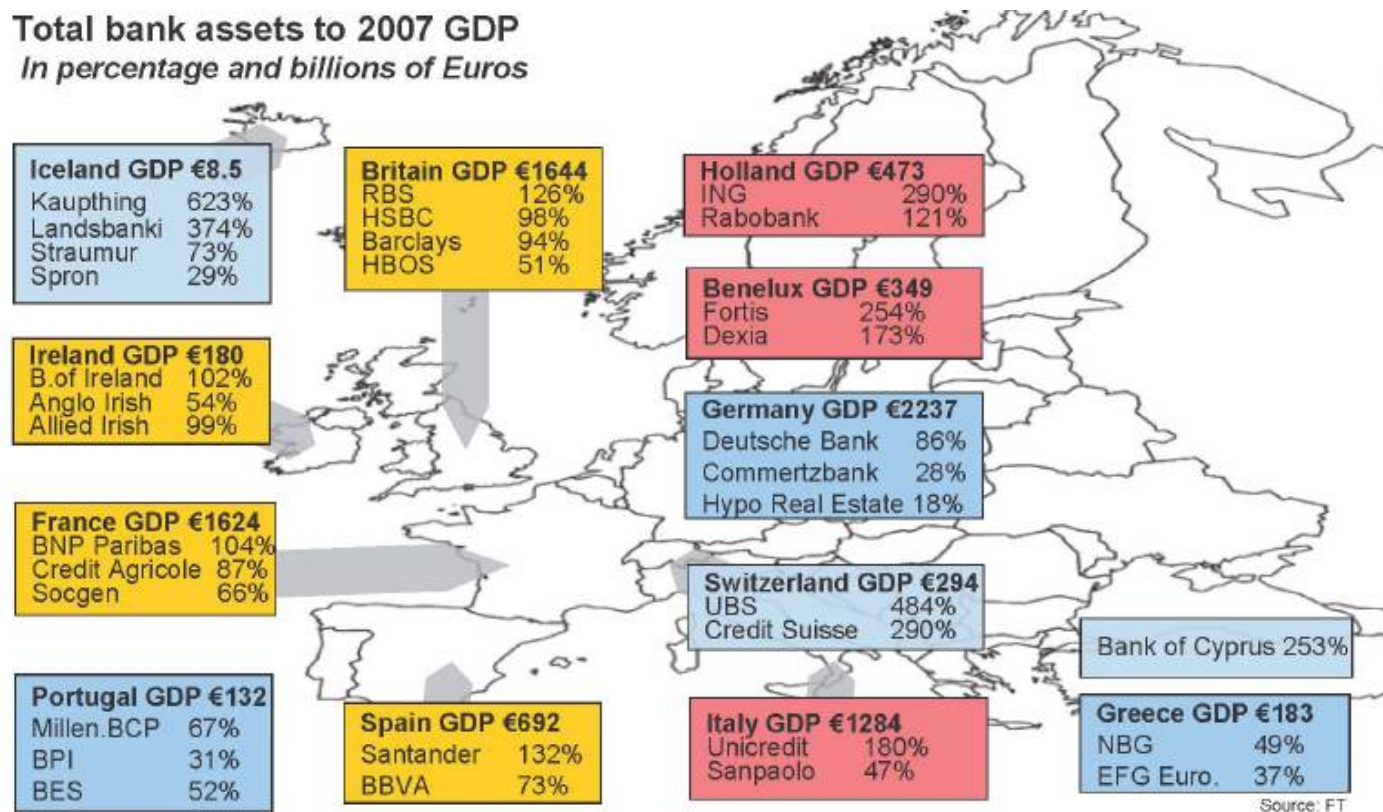
경제 전망 (세계)

• 유보적 전망 (Simon Johnson 등)

미국 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금융 위기 가능성 제기

- Too big to fail 에서 Too big to save로

Total bank assets to 2007 GDP
In percentage and billions of Eur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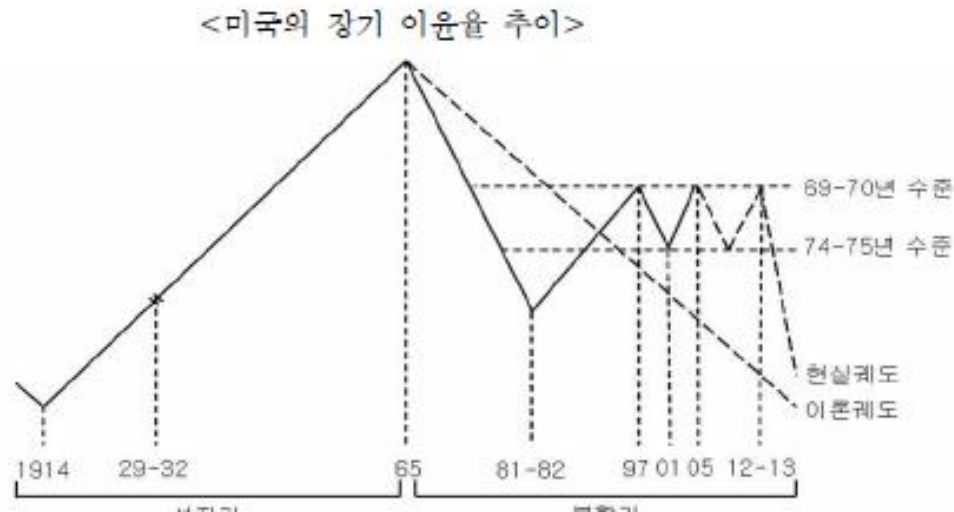
Source: FT

경제 전망 (세계)

• 비관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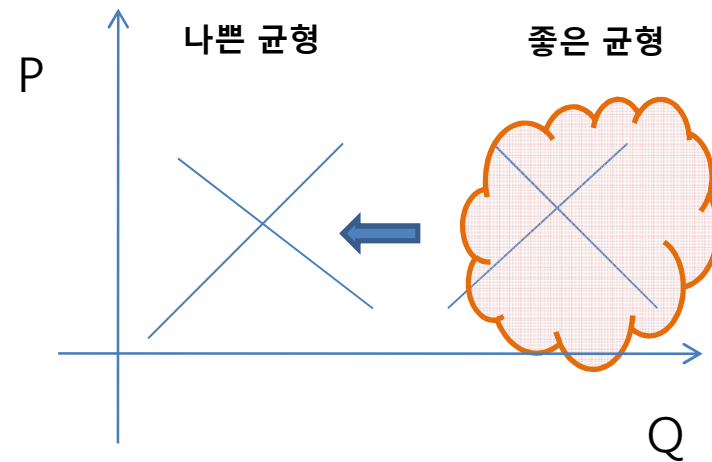
-윤소영

포드주의/테일러주의 생산 혁명, 법인자본주의 혁명에 버금가는 생산기술혁명 부재. 65년 이후 이윤율 저하로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지속. 금융적 방식으로 회복 모색하지만 이윤율 저하 궤도로 수렴.



Duncan Fo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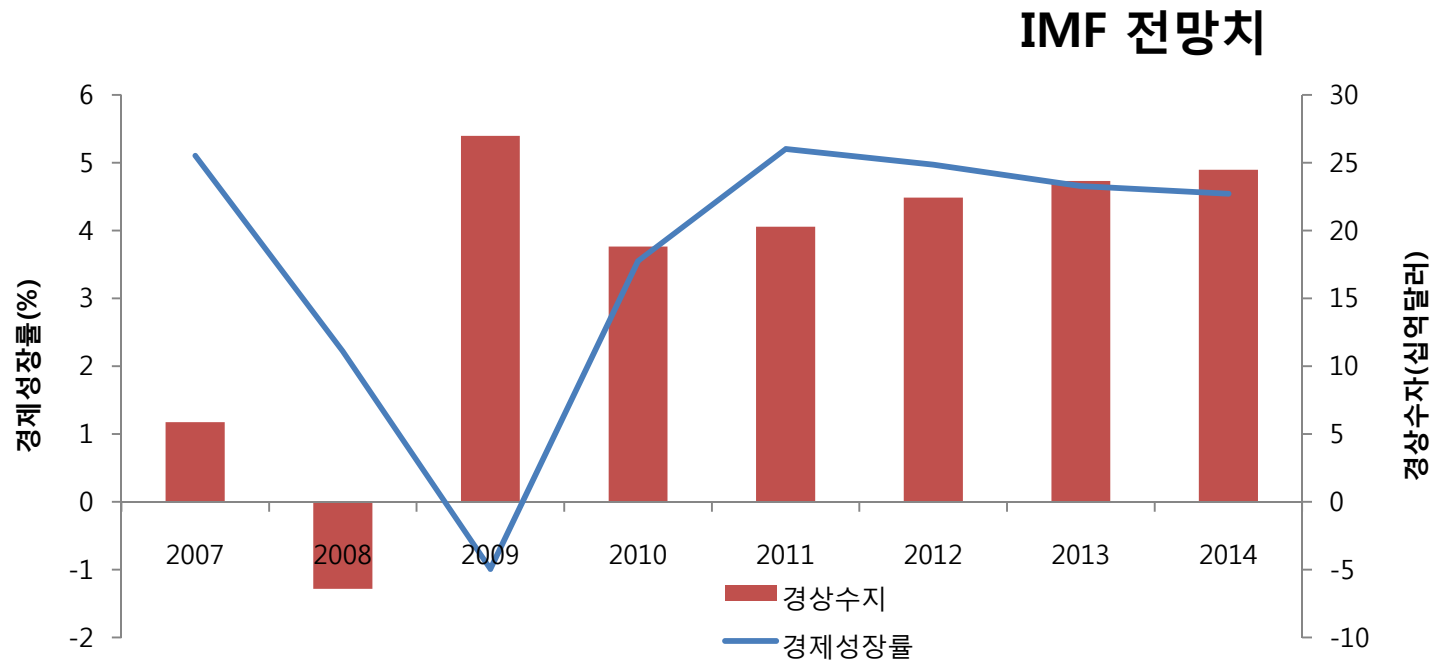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정부 지출을 통해서라도 다시 생산과 소비가 고점에서 유지되는 균형을 바램. 하지만 현재 금융 위기는 근 10년 이상 지속된 자산 거품 성장의 한계. 좋은 균형 자체가 사라지고, 저생산-저소비의 저점 균형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



경제전망(한국)

- 한국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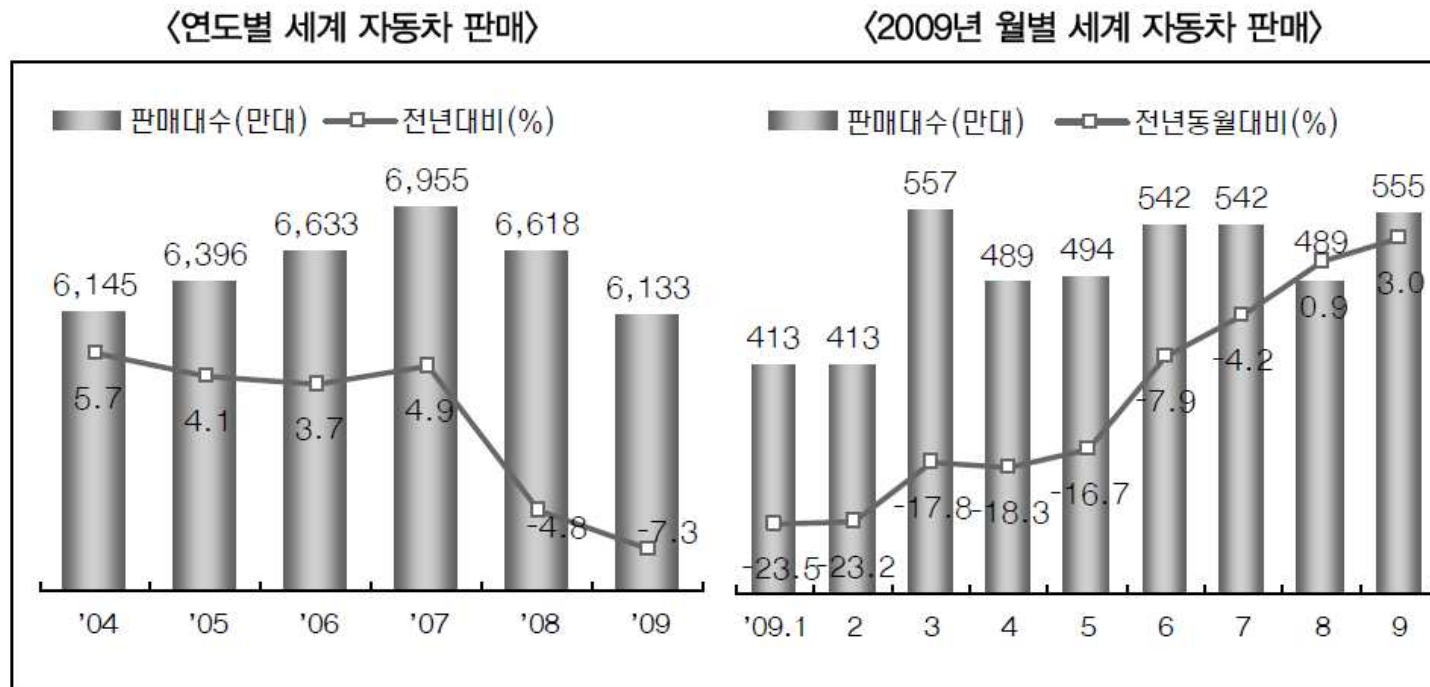
- 독자적 전망보다는 세계 경제 흐름에 종속.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수출의 성장기여도는 90%대)



IMF를 비롯한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대부분 2010년부터 3~5%대 성장을 전망.
경상수지(상품+서비스)는 200~250억 달러 흑자 전망

경제전망(자동차)

• 자동차 판매 추이



자료 : 글로벌 인사이트,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자료 : J.D.파워 추정치

경제위기를 계기로 추락하여 2009년 1월 저점을 찍음. 2009년 1월부터 판매를 회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 역할이 컸음.

여전히 2007년 수준에 비해 낮음.

경제전망 (자동차)

• 2010년 전망 (낙관적)

〈지역별 판매 전망〉

(만 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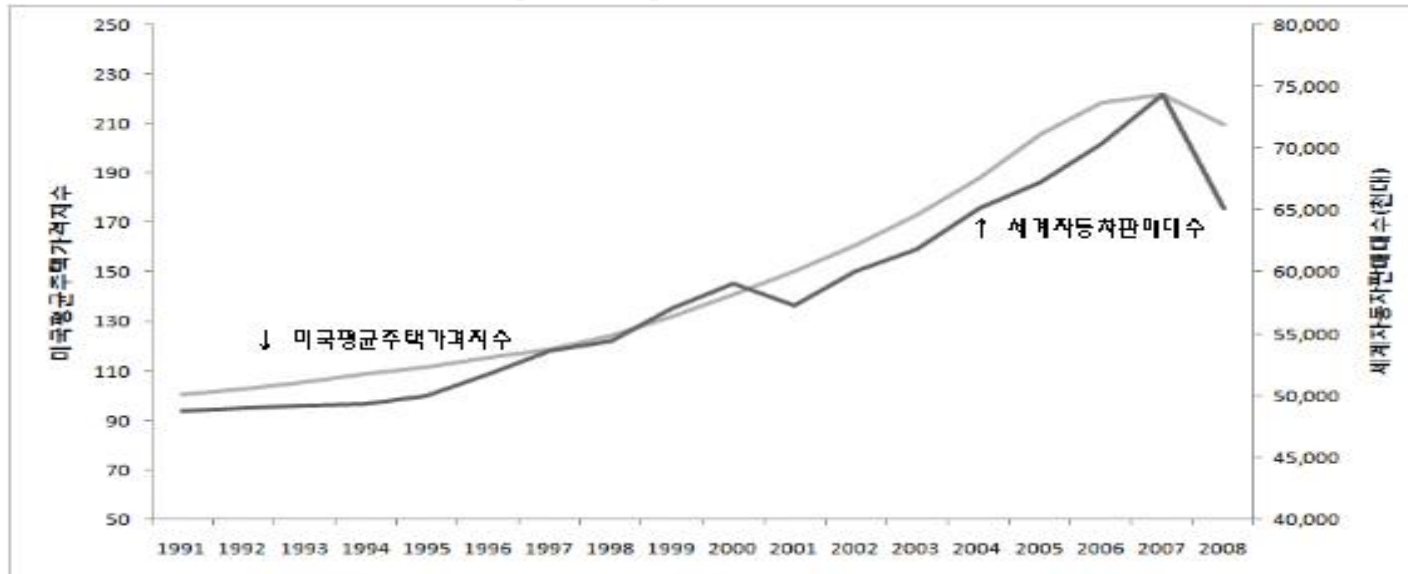
	2008년	2009년	증가율	2010년	증가율
미국	1,319	1,030	-21.9	1,180	14.6
유럽(EU)	1,673	1,560	-6.8	1,550	-0.6
일본	508	490	-3.6	502	2.4
중국	938	1,288	37.3	1,356	5.3
인도	198	219	10.6	242	10.5
러시아	291	153	-47.4	174	13.7
브라질	265	291	9.8	308	5.8
전세계	6,618	6,133	-7.3	6,492	5.9

주 : 일본, 중국, 인도는 중대형상용 포함, 미국, 유럽, 러시아, 브라질은 중대형상용 제외,
 중국은 중국자동차공업협회 기준

한국자동차 산업연구소는 2010년 약 5.9% 성장 예상.
 총 판매대수는 6천 5백만대 수준으로 2005년과 비슷.

경제전망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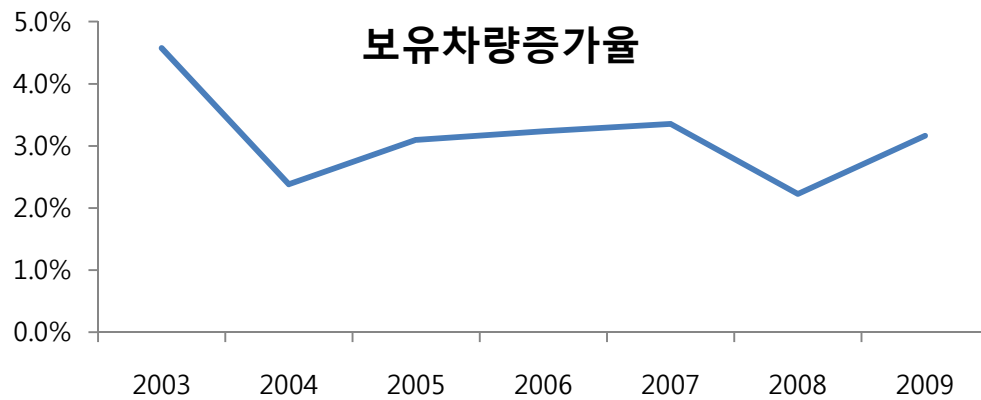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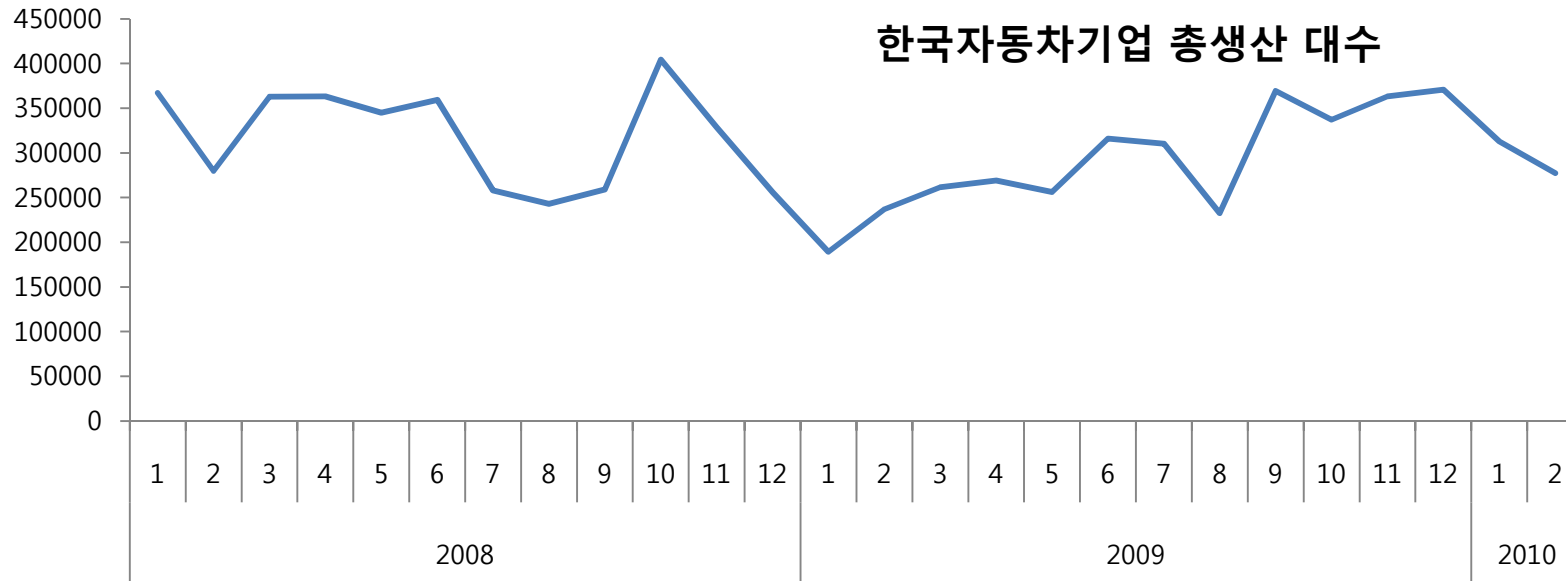
• 2010년 전망 (비관적)



80년대 이후 금융 세계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임금 소득에 기초한 소비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채 소비를 부추켜왔음. 90년대 이후의 자동차 소비는 부동산 가격으로 상징되는 자산 시장 거품과 궤를 같이 함. 따라서 이러한 소비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자산 시장과 소비가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음.

새로운 자산 거품이 전 세계에 진행된다면 자본주의 몰락의 길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비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는 없음. (현재 중국 자동차 소비 성장은 중국 자산 거품 덕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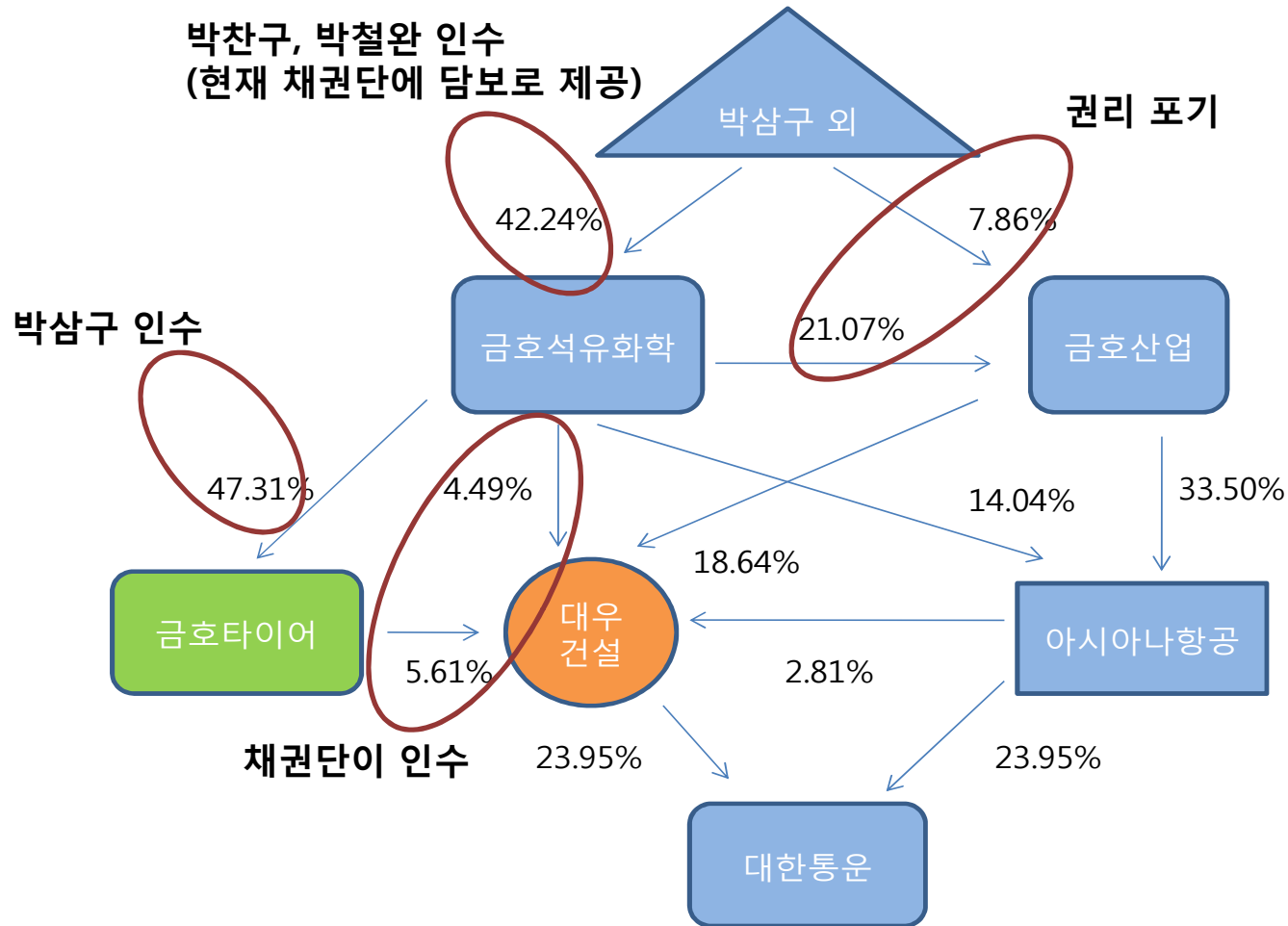
경제전망(자동차)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2008년 4분기에 크게 생산 하락을 겪었으나, 국내외 자동차 보조금 정책으로 2009년 2월부터 반등. 하지만 보조금 정책이 끝나자 2010년부터 다시 하락 중.

금호 그룹 구조조정

- 그룹 지분 현황과 정리 방안(산업은행 및 박씨일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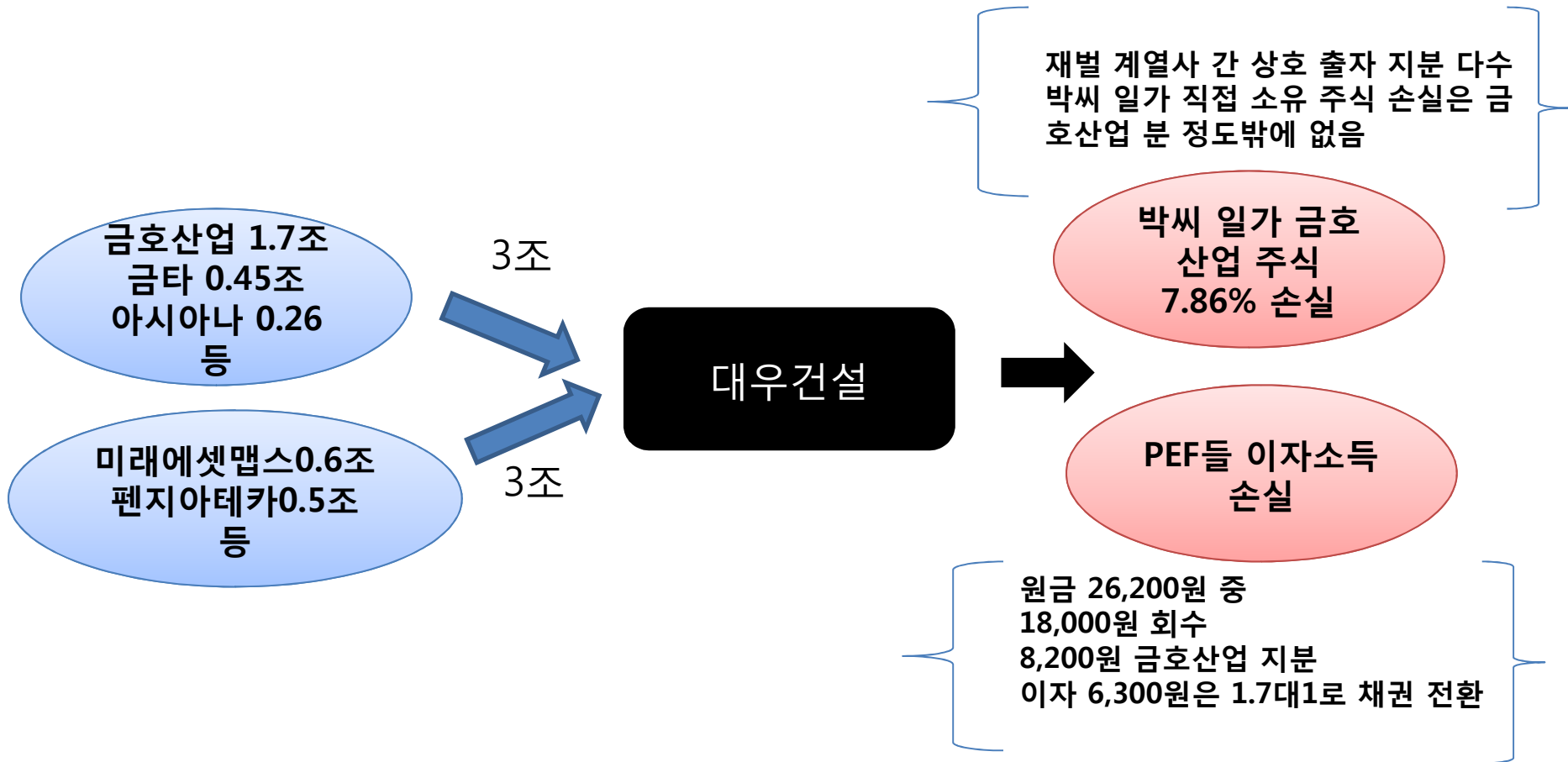


금호산업을 정점으로 한 아시아나, 대한통운, 대우건설은 계열 분리.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는 박씨 일가 소유로. 박씨 일가 내부 합의로 금타 박삼구, 금호석화 박찬구로 정리

금호그룹 구조조정

- 투기꾼들은 그리 손해보지 않았음



금호 그룹 구조조정

• 금호타이어 2010년 전망

- 매출 회복은 계속되나 속도는 줄어들 수 있음

- 국내외 자동차 기업들의 매출 회복세가 정부 보조금 중단으로 주춤. 하지만 08~09년 초의 경기하락은 다소 벗어난 듯 보임
- 금호타이어 내수 수출 비중은 4:6. 신차용과 교체용 타이어 비율은 2.5:7.5 정도. 신용 경색 등의 급격한 추락이 있지 않으면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은 가능.

- 비용 절감 운동이 거세게 진행 될 것

-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에 반해 이자비용, 부채 상환금 등의 재무 압박은 계속될 것.
- 영업 이익을 흑자로 반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금융 비용 조달까지 염두해 둔 비용 절감 계획을 낼 것.
- 2009년 인건비 총액은 2008년에 비해 약 1천억 원 정도 줄어든 상황(2008년 4,316억, 2009년 3,340억).
- 사측의 계획은 매출을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고(당시 영업이익 365억), 비용을 2009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줄이면 1~2천억 규모 영업이익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 것.

- 채권단의 박삼구 회장에 대한 채무 상환 능력 시험

- 박씨 일가의 주식은 현재 모두 채권단에 처분권이 넘겨진 상황. 일종의 채무에 대한 담보. 그 대가로 박씨 일가는 우선 경영권 획득.
- 채권단의 유일한 관심사는 박삼구 회장의 채무 상환 능력일 것임.

구조조정 대응 전략

- **금호타이어 당장 '망할 가능성'은 없음**
 - 2010년은 어느 정도 회복 가능.
 - '워크아웃' 기간 중 채권단과 사측의 위협은 공갈 협박. 현재 이슈는 사실 소유권 문제.
- **중단기적으로는 또 다른 경제 위기 가능성 존재**
 - 올해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더 큰 구조조정 존재 가능하기 때문
 - 위기에 대한 '책임 전가' 작태에 밀려서는 안됨
- **박삼구 회장의 소유권 박탈이 중요**
 - 경영 위기 책임은 현 경영진임.
 - 박삼구 회장이 담보로 가 있는 자신의 주식을 찾아오는 길은 채권단에게 채무 상환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 이는 단기적 수익성 회복을 위한 대규모 해고밖에 없음.
-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지역연대가 돌파구**
 - 귀족노조 공격은 애초부터 악의적. 비정규직과 단결하는 사회적 정의로 돌파.
 - 지역 고용과 금호타이어의 지역 경제 책임 속에서 여론전 우위 점해야 함.
- **투기꾼들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
 - 금호타이어 사태는 금융 세계화 시대 재벌과 금융 투기꾼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
 - 산별노조는 본 사태를 산업적, 국가적 차원에서 이슈화 해내야 함.

구조조정 대응 전략

- **대안적 기업 정상화 방안을 주동적으로 주장**
 - **박씨 일가 재산 무상 출연 / 산업은행 등 채권단 출자전환**
 -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 박씨 일가가 처분권을 맞긴 주식을 무상으로 금호타이어에 출연해야 함. (금호석화의 금타 주식과 교환)
 - 1조원 이상의 은행권 채무를 출자전환해야 함. 사실 금타 부실의 한 축은 금호그룹 차원의 투기성 기업 사냥에 돈을 대준 은행권임.
 - 이 경우 소유권은 산업은행이 가지게 될 것임. 최악의 경우 노동조합은 현재 채불 임금 등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지분에 참여할 수도 있음.
 - **노동 친화적, 지역 친화적 기업 정상화**
 - 인건비가 비용 절감의 핵심이 아님. 줄여도 1~1.5천억 규모인 인건비보다 각종 영업외비용과 채무상환 압박이 중요.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알아야 함.
 - 또한 투자 방기로 생산성 및 지역 내 고용 확대도 나몰라라 한 금호 경영진 문제를 부각해야 함.
 -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내 신규 채용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노동 친화적 기업 만들기,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방식의 선순환 기업 정상화가 되어야 함. 해고->지역 경제 손실 ->재벌 이익으로 환수 방식의 악순환을 피해야 함을 적극 설득해야 함.

구조조정 대응 전략

- **쌍용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함**
 - 국외자본 상하이자동차의 자본 철수와 박씨 일가가 소유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는 현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름.
 - 부채 규모가 커 자본 잠식 위험이 존재하지만, 2년간의 유동성 위기 성격이 크기 때문에 채권단 입장에서 보는 기업가치는 큰 편. 영업적자는 2009년 뿐이었음.
- **현 사측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야 함.**
 - 여기서 밀린다면 박삼구 회장이 다시 지분을 되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조와 조합원들을 압박할 것.
 - 현재 오히려 유리한 것은 노조. 박씨 일가에 대한 사회적 지탄 여론이 높고, 공장 가동률도 높아진 상황.
 - 현 구조조정 안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양보는 존재하지 않음.
- **사측의 주요 일정들을 잘 활용**
 - 2010년 3월 30일 주주 총회/ 주요안건: 감사보고서, 이사선임
 - 2010년 4월 5일, 워크아웃 기간 종료/ 기간 연장 등 검토

[참고] 주요 경영 지표(06~09년, 분기별, 십억원)

	2006				2007				2008				2009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TotalAssets	2,051.70	2,212.90	2,231.80	2,409.80	2,456.40	2,436.30	2,473.30	2,472.20	2,575.60	2,737.30	2,921.40	3,104.20	3,075.30	3,040.30	2,837.30	2,579.00
CurrentAssets	689.9	848.6	886.5	591.4	661.6	655	662.1	691.1	761.8	909.1	1,001.30	1,052.40	997.7	997.2	852.9	796.6
Non-currentAssets	1,361.80	1,364.30	1,345.30	1,818.40	1,794.80	1,781.30	1,811.20	1,781.10	1,813.80	1,828.30	1,920.10	2,051.80	2,077.60	2,043.10	1,984.50	1,782.40
TotalLiabilities	1,117.00	1,275.80	1,310.60	1,499.90	1,577.20	1,548.40	1,593.40	1,600.90	1,725.50	1,865.00	2,021.80	2,196.30	2,273.60	2,359.20	2,333.50	2,356.30
CurrentLiabilities	515.8	668.1	579.2	818.2	788.8	699.2	872.8	719.1	862.5	971.5	1,228.10	1,527.40	1,633.90	1,722.90	1,874.60	1,891.00
LongtermLiabilities	601.2	607.7	731.4	681.7	788.4	849.2	720.6	881.8	862.9	893.5	793.6	668.9	639.7	636.2	459	465.3
Stockholders'Equity	934.7	937.1	921.2	909.9	879.2	887.9	879.9	871.3	850.1	872.3	899.7	907.9	801.7	681.3	503.4	222.7
TotalDebt	704.6	880.7	900.2	1,107.50	1,179.50	1,128.90	1,186.20	1,144.80	1,274.20	1,363.20	1,367.00	1,333.90	1,468.30	1,810.60	1,726.80	1,577.40
Netdebt	494.7	545.4	566.2	1,081.90	1,166.50	1,114.80	1,171.30	1,117.10	1,262.00	1,349.20	1,355.00	1,321.70	1,436.90	1,789.90	1,712.90	1,565.00
Volume('000)	8,111	8,333	8,022	8,387	7,329	8,184	7,895	8,841	7,128	7,499	6,999	7,191	5,264	5,807	5,372	6,884
Sales	427.6	428.6	455.4	497.1	453.7	517.3	503.5	554.8	524.7	614.4	623.6	636	496.9	468.6	469.9	507.4
ExportRatio	58.10%	56.00%	56.50%	51.30%	55.60%	54.80%	53.70%	54.10%	56.40%	56.50%	58.70%	56.30%	66.20%	62.50%	55.10%	54.60%
CostSales	333.1	348	377.4	404.1	359.3	402.3	403	430.7	410.4	471	494.2	604.9	475.2	431.1	448.6	455.3
SG&AExpenses	68.2	65.9	66.8	64.6	72.2	79.7	76.7	93.8	85.3	90.6	90	115.7	81	82.4	78.5	89.9
Rawmaterial	164.8	165.7	178	181.3	170	177.7	164.5	182	181.4	225.5	232.6	274.3	158	162.9	177.3	204.1
Labor(COGS)	74	78.3	89	85.4	74.8	86.2	89.3	85.8	80.5	83.3	85.8	95.3	78.2	64.8	59.3	62.4
Labor(SG&A)	16.3	16.5	17.3	18.3	18	19.6	19.6	19.1	19.8	21.2	22.1	23.6	16.2	18.8	17.3	17
Depreciation(COGS)	31.4	32.3	33.4	34.1	32.7	33.5	31.3	30.3	31.9	32.7	33.5	34	23.4	23.3	23.5	20.7
OperatingProfit	26.2	14.7	11.2	28.3	22.1	35.4	23.8	30.3	28.8	52.8	39.4	-84.7	-59.3	-44.9	-57.2	-37.8
IncomeTaxes	4.2	-2	-0.9	0.5	0.3	1.8	-2.8	-1.2	-4.8	-9.2	-16	-24.1	-12	-23.2	0	-11.3
NetProfit	14.3	3	-11.5	-5.5	-14.3	11.3	-10.7	-10.5	-31.6	3.3	-22.3	-149.8	-109.1	-113.2	-114.3	-278.1
EBITDA	59.4	48.8	46.5	64.1	58.6	72.7	60.1	65.1	55.9	91.3	75.9	-46.3	-31.5	-17.1	-29.1	-12.5
Cashflow from Operating	-30.7	25.7	12.1	12.7	-55.1	94.5	13.3	69.4	-82.6	-24.7	120.4	90.3	-55.7	-198.4	92.3	-21.1
Cashflow from Investment	65	-49.4	-33.1	-517.4	-27.4	-24.5	-68.5	-10.5	-56.6	-48	-95.3	-41.6	-56.4	-221.3	40.1	142.2
FreeCash flow	34.3	-23.7	-21	-504.7	-82.5	70	-55.2	58.9	-139.2	-72.7	25.1	48.7	-112.1	-419.7	132.4	121.1
Cashflow from Financing	-108.8	134.3	19.7	211.2	69.9	-68.9	55.9	-46.1	123.7	75.1	-27.6	-48.5	124.1	356.4	-878.8	677.4
BeginningCash	283.9	209.4	320	318.7	25.2	12.6	13.7	14.4	27.2	11.7	14	11.5	11.7	23.7	10.4	10.6
EndingCash	209.4	320	318.7	25.2	12.6	13.7	14.4	27.2	11.7	14	11.5	11.7	23.7	10.4	10.6	12.4

구조조정 대응 전략

감사합니다.

